

# 한전,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전기요금 현실화는 ‘난제’

국내 최대규모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연간 234GW 전력 생산  
전력 설비 확충 등 천문학적 자금 투입…전기요금 내년초 동결 예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내 최대규모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단지를 준공하는 등 정부 주도의 재생 에너지 중심 전력계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전력 설비 확충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계 및 정치권 이슈 등으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분간 어려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김애숙 제주도 정부부지사,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주사·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한전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연간 234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발전단지가 위치한 제주도 지역인 6만 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정부의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결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가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력계통 전환에 나서면서 시설비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육·해상 풍력발전을 임기 내 4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육상 풍력 발전량은 현재 2GW 수준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까지 늘리고, 해상 풍력 발전 역시 현재 0.3GW에 불과하지만 2030년 4GW, 2035년 25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분산에너지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대대적인 전력망 확충 과정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21~2023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대폭 상승했는데도,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45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와 200조원을 웃도는 부채를 기록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해 적자폭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29조원이라는 막대한 누적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은 2023년 3분기부터 올 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동결됐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수차례 인상되면서 산업계에서는 현재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전력직접구매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탈한전’ 가속화도 부담이다. 하지만 내년 초에도 전기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 연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변하는 가격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1kWh 당 +5원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화석연료 발전단가 수준으로 낮추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 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독일 등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유럽 국가의 전기요금이 이미 국제 평균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농가·구매사 직거래 교류회 개최

40곳 참여…1대 1 상담 등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5일 ‘농가·구매사 직거래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전국 40개소 농가조직과 유통·수출·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한 만남의 장으로,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구매사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가조직은 아워홈,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식자재 유통사부터 네이버, 오아시스, GS리테일 등 온·오프라인 유통사, NH농협무역 등 3개 수출업체, 4개 식품제조업체 등과 189회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 다각화에 집중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지속 가능한 유통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대형유통사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 거래 기회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올해 지방정부와 대형유통사를 연결하는 구매상담회를 8차례 운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협무역 등 3개 수출업체, 4개 식품제조업체 등과 189회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 및 판로 다각화에 집중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지속 가능한 유통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대형유통사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요자 간 거래 기회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올해 지방정부와 대형유통사를 연결하는 구매상담회를 8차례 운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 감사인·준감사인 역량 강화 워크숍 시행

부정 징후 포착 등 사례 공유

한전KDN은 “지난 15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다목적실에서 감사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현준 성우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를 초빙해 ‘전사적 사업 분석 및 회계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신규 추진사업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재무 정보 분석을 통한 검증을 통한 사전 감사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전 KDN 감사실 소속 감사인과 준감사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무제표 이해 및 분석을 통한 재무 정보 해석, 비정상 회계패턴 및 부정 징후 포착과 내부통제 제도 연계 방안, 주요 회계 이슈 점



검 및 위험 기반 감사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이론,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한 실무 중심 이해, 업무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워크숍이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KCA, IT협력사와 소통·협력 나선다

직원들 애로사항 등 청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6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주요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IT협력사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훈 KCA 원장을 비롯해 SMT정보기술, 시스템게이트, 유클라우드소프트 등 3개 협력사의 직원, 업무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KCA의 행정지원 업무포털, ICT기금 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전자파강도측정시스템, 전

파누리 등 주요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 준 협력사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KCA원장은 “협력사 직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핵심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켄텍, ‘개방형 전력계통 모델링’ 생태계 구축 논의

AGM 워크숍서 계통 계획 등 제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16일 ‘켄텍 전력계통모델링 고도화센터(AGM)이 나주시 빛가람동 본교 국제회의장에서 ‘2025 AGM 워크숍: 오픈 그리드 모델링을 향하여’를 열고, 개방형 전력계통 모델링 생태계 구축 방향 및 자체 개발한 계통해석 플랫폼인 ‘KPG’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전원 증가로 인해 복잡해진 전력계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계통해석 모델과 공통 분석 기반 필요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AGM센터는 KPG를 소개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공유하는 등 계통 계획·운영·정책 수립 전반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집 AGM 센터장이 ‘Open Grid Initiative와 KPG 플랫폼 소개’를 발표했고, 송성운 한국공학대 교수는 ‘KPG-193 기반 계통 안정도

해석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개방형 해석모델의 구조와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윤민한 공운대 교수, 임종호 한국전력공사 북항망기술부장, 윤혁준 한국전력거래소 계통개발팀장, 민상원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현 넥스트 CTO,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이 참여해 전력계통 주요 현안과 개방형 모델링의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KPG 플랫폼이 계통 계획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집 AGM 센터장은 “AGM 센터의 연구 성과와 KPG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델링 중심의 통합적 계통 분석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튜토리얼과 세미나 시리즈 등 워크숍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논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